

# 4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일 : 2016년 3월 31일



최근 5년간(2011~2015년) 4월 상순에는 서해중부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으나, 그 밖의 해상에서는 파고가 약간 높았음. 중순에는 서해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으나, 그 밖의 해상에서는 파고가 약간 높았음. 하순에는 서해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서 파고가 낮았고, 그 밖의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1~2015년) 4월 상순에는 서해중부(덕적도)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으나, 그 밖의 해상인 서해남부해상, 남해 및 동해해상, 제주도해상에서 파고는 약간 높았음. 중순에는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파고가 낮았으나, 그 밖의 해상인 남해 및 동해해상, 제주도해상에서 파고는 약간 높았음. 하순에는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과 남해동부(거제도)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으나, 그 밖의 해상인 남해서부해상 및 동해해상, 제주도해상에서 파고는 약간 높았음.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서해안의 인천은 4월 9일에 934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4월 8일에 401cm, 동해안의 포항은 4월 12일에 27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해양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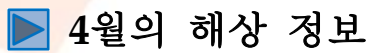
- 안전의식 고취 및 사전 점검 필수
- 시계 제한 상황 및 야간항해 주의
- 갑작스런 기상 불량에 대비한 안전 운항 및 조치
- 본격적인 성어기에 대비하여 선체 및 기관 등 사전 정비
- 줄음운항 방지, 충돌사고 예방의 지름길 !

## 어업기상

- 4월의 연안 월평균 수온은 동해 9~15℃, 서해 8~14℃, 남해 12~16℃로 평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1℃ 내외로 높은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예상 수온은 동해 : 9~15℃, 남해 : 12~16℃, 서해 : 8~14℃

자료협조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최근 5년간('11~'15년) 4월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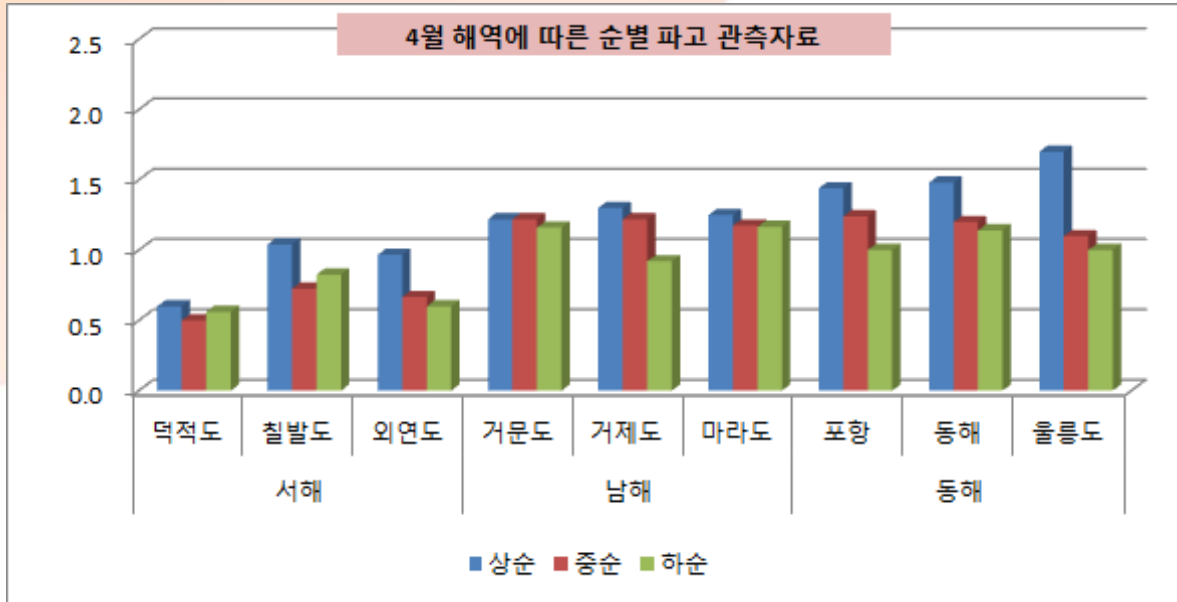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11~2015년) 4월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4월의 해역에 따른 해양기상부이의 파고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과 남해해상(거문도, 거제도), 제주도 해상(마라도)은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은 파고가 낮았음. 순별로 살펴보면, 상순에는 서해중부해상(덕적도)에서 파고가 낮았으나, 서해남부해상(칠발도), 남해 및 제주도해상(거문도, 거제도, 마라도),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중순에는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은 파고가 낮았으나, 남해 및 제주도해상(거문도, 거제도, 마라도),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하순에는 서해해상·남해동부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거제도)에서 파고가 낮았으나, 남해서부·제주도해상 및 동해해상(거문도, 마라도, 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4월에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동해 중부면바다(울릉도)로 1.70m(상순)이였음.(그림1)

※ 울릉도 부이 자료는 2012년도 신설로 인하여 해당년도부터 추가함.

▶ 최근 5년 및 2015년 4월 풍랑특보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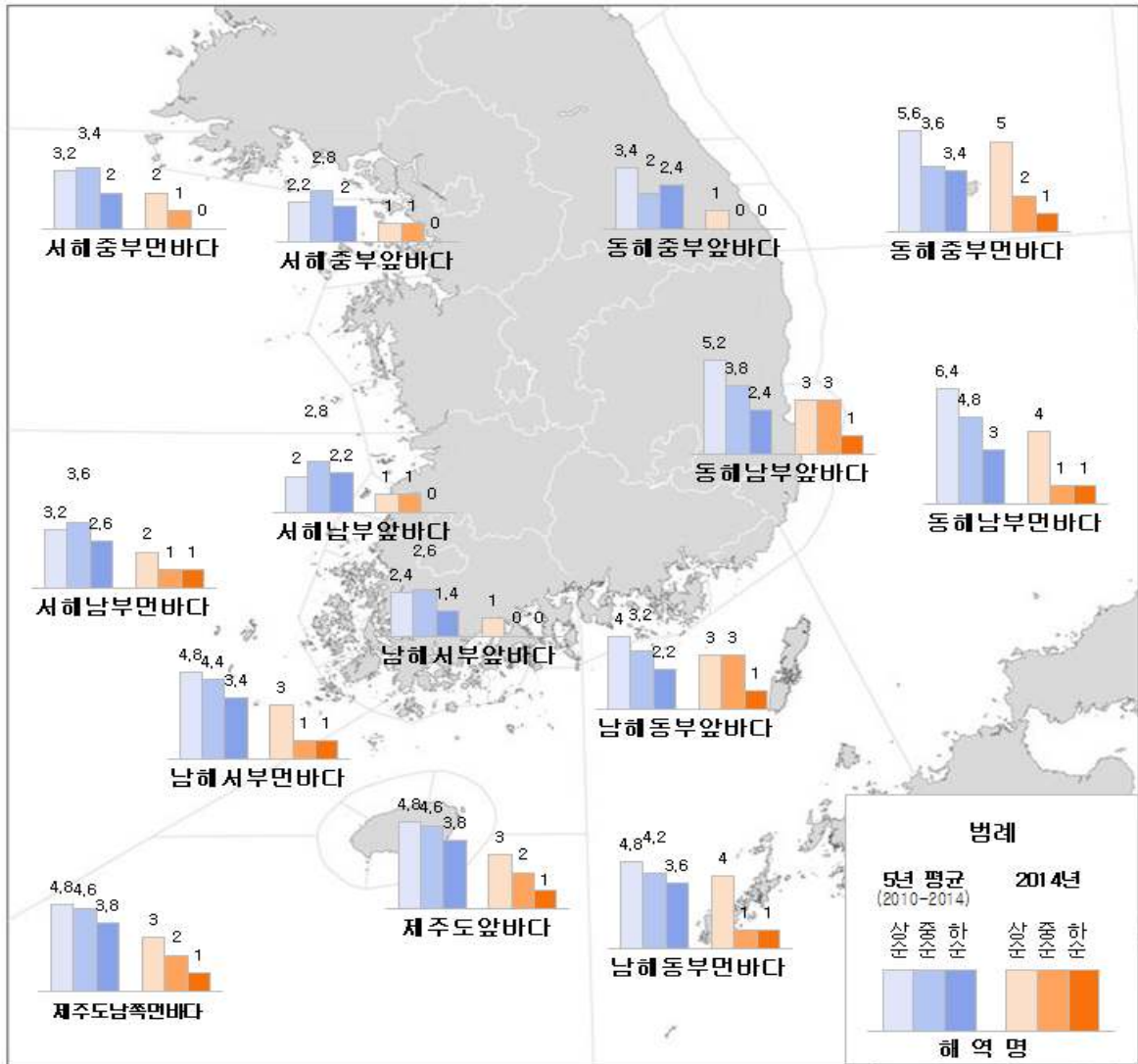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11~2015년) 및 2015년 4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4월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는 평균 3.5일로 전월(3월 평균 2.8일)에 비해 증가하였음. 순별 특보 평균일수는 상순(4.1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순(3.6일)이며, 하순(2.7일) 순으로 특보 일수가 나타났음. 지난해(2015년) 4월의 풍랑특보일수는 상순에 평균 2.6일로 최근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3.5일)과 상순 평균 4.1일보다 적게 발표하였고, 중순의 풍랑특보일수는 1.4일로 최근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3.6일)보다 적게 발표하였으며, 하순에 평균 0.6일로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2.7일)보다 아주 적게 발표하였음. 최근 5년간 4월에 풍랑특보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역은 동해남부먼바다에서 총 14.2일로 발표하였으며, 남해서부앞바다에서 6.4일로 가장 적었음.

▶ **지난해(2015년) 4월의 해황**

2015년 4월에는 전 해상에서 북동~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주로 나타났음. 풍속도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 해상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47.0%, 5.0~9.9m/s의 바람이 약 41.0%의 분포를 보였고, 10m/s 이상의 바람은 약 10.3%의 분포를 보였음.

앞바다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47.3%, 5.0~9.9m/s의 바람이 약 39.7%, 10m/s이상의 바람이 11.0%로 나타남.

2015년 4월의 해역별 바람 상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역		주풍계	풍속 분포(%)			
광역	국지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앞바다	남서~남동	56.9	35.4	2.0	0.3
	먼바다	남서~남동	62.3	32.1	2.1	0.2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서	49.2	39.4	6.7	3.2
	먼바다	북	61.2	33.0	3.7	0.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21.7	48.7	18.0	11.1
	먼바다	북동~동	43.4	44.4	10.8	0.4
제주도	앞바다	북서	49.8	40.9	7.8	0.7
	남쪽먼바다	북	34.6	49.9	13.5	0.0
남해동부	앞바다	북동	57.3	39.0	2.9	0.7
	먼바다	북동	30.8	47.5	18.6	1.9
동해남부	앞바다	북동	35.7	39.9	16.3	7.1
	먼바다	북동	35.3	50.5	9.5	4.1
동해중부	먼바다	북동	46.9	44.2	7.6	0.7
전해상			47.0	41.0	8.2	2.1

작년(2015년) 4월의 해역별 파고분포를 살펴보면, 전 해상 2.0m 이하의 파고가 약 88.9%로 낮은 파고의 비율이 높았으며, 3m 이상의 다소 높은 파고의 비율은 동해상만 약 3.1%를 보였고, 다른 해상에서는 1.0% 내외로 비율이 낮았음

해역구분	파고분포(%)				
	<1.0m	1.0~1.9m	2.0~2.9m	3.0~4.9m	>=5.0m
서해상	71.9	22.7	4.2	1.2	0.0
남해상	41.8	45.9	11.4	0.9	0.1
제주도해상	38.1	52.6	9.3	0.0	0.0
동해상	47.9	35.8	13.2	3.1	0.0
전해상	52.5	36.4	9.6	1.5	0.0

▶ 봄철 서해, 남해 등 연안지역 ‘기상해일’ 주의!!

기상해일은 강한 기압변동에 의해 발생한 해수면의 천해파가 기압변동과 같은 속도로 이동할 경우 공진하면서 증폭되어 해안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봄철(3~5월)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저기압에 의해 발생한 해상의 파동이 서해를 지나오면서 연안의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돌발적으로 증폭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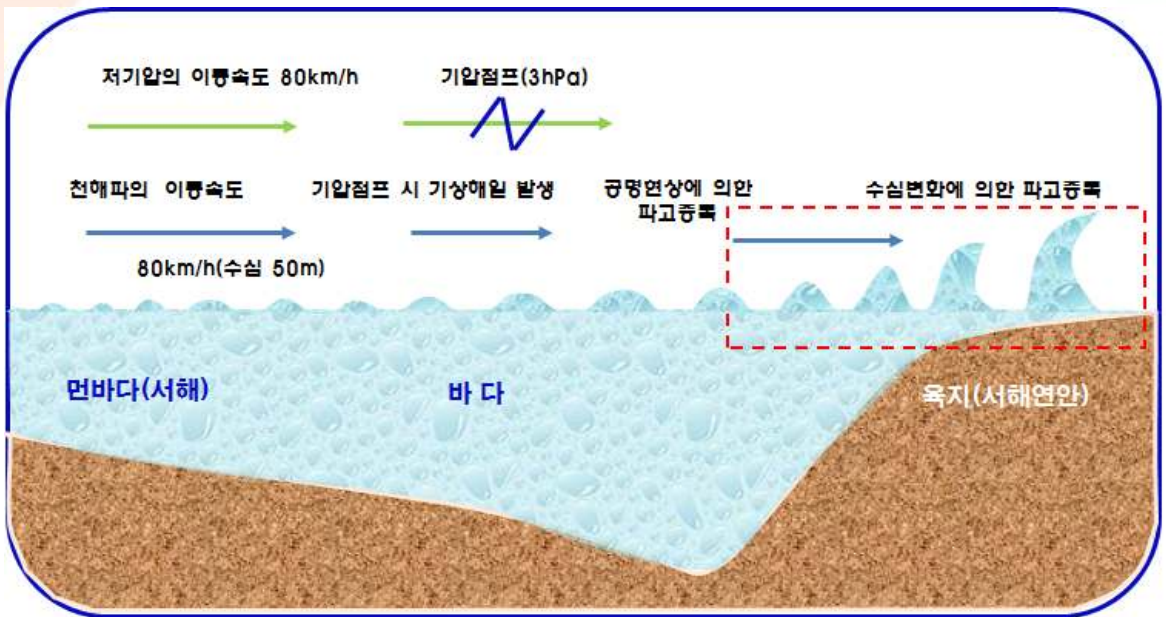


그림 3. 기상해일 발생 모식도

특히, 서해는 평균 수심이 약 40~50m 이므로 천해파의 이동속도가 약 70~80km/h임. 만약 서해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이동속도가 80km/h 라면 천해파 속도와 저기압의 이동속도가 일치하여 날씨가 좋은 날에도 기상해일이 발생할 수 있음

평균수심	20m	30m	40m	50m (서해평균수심)	60m	70m
천해파 속도	14m/s 50km/h 27knot	17.1m/s 62km/h 34knot	19.8m/s 71km/h 39knot	22.1m/s 80km/h 44knot	24.2m/s 87km/h 47knot	26.2m/s 94km/h 51knot

### ▷ 기상해일 피해사례

국내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2005년 2월 제주 옹포리를 시작으로 2007년 3월 31일에 영광일대에서 발생하여 주택가 침수와 어선 전복 피해가 있었으며, 2008년 5월 4일에는 보령 죽도에서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림 4. 기상해일관련 언론 기사(좌), 2008년 5월 4일 발생 당시 CCTV 스냅사진(우)

2011년 4월 26일 흑산도 일대에서 발생하여 8개소 40대 시설물 전복(휨, 파손), 60대 가두리 유실, 3척의 소형선박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서해안의 기상해일은 먼바다에서 대기의 교란 등에 의해 생성된 장주기 파랑이 연안 가까이 도달하면서 해저지형 등의 영향을 받아 천수효과, 만조, 회절, 반사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으로 발생하니 5월까지 해양 활동 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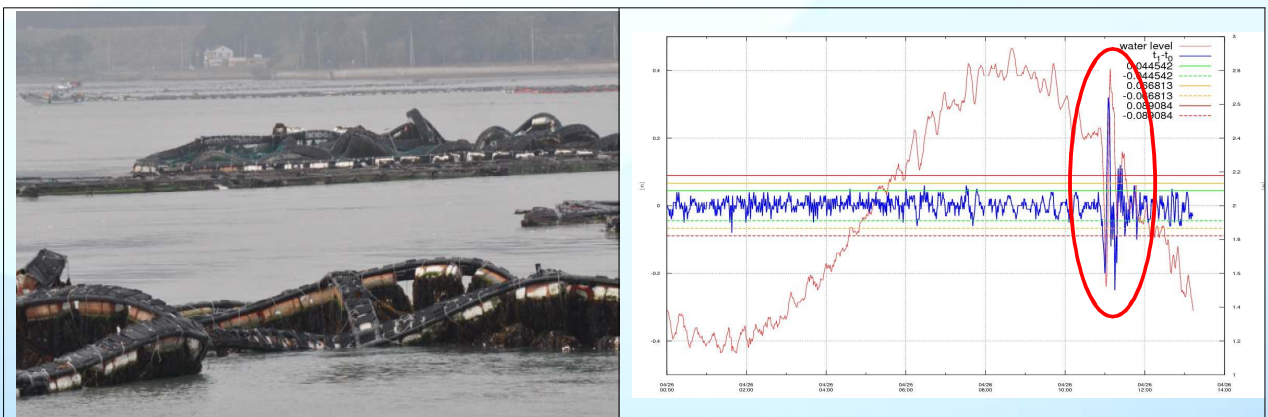


그림 5. 2011년 4월26일 가두리양식장 피해사진(좌), 국립해양조사원 흑산도 검조소 관측자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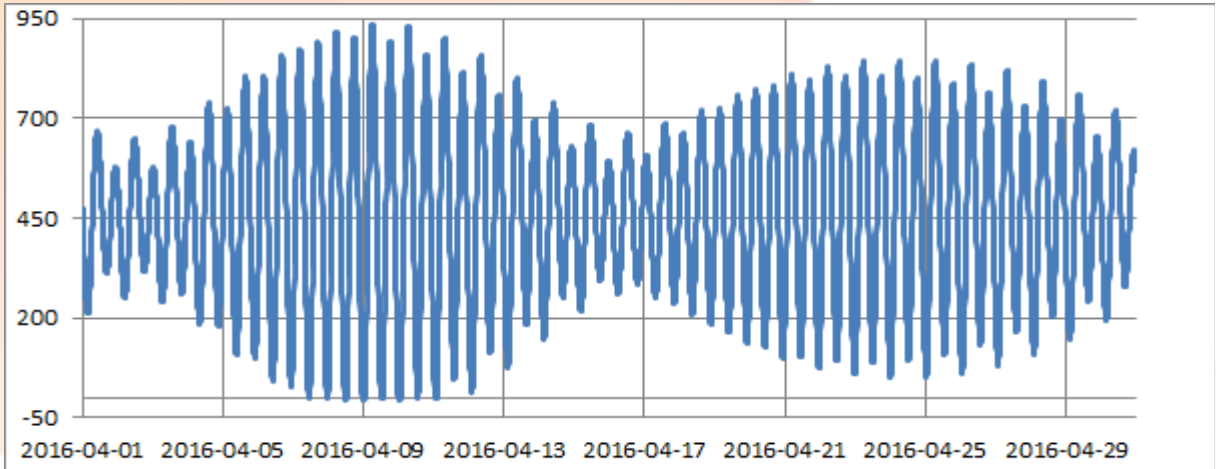
▶ 2016년 4월 조석 예보

서해안의 인천은 4월 9일에 934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4월 8일에 401cm, 동해안의 포항은 4월 12일에 27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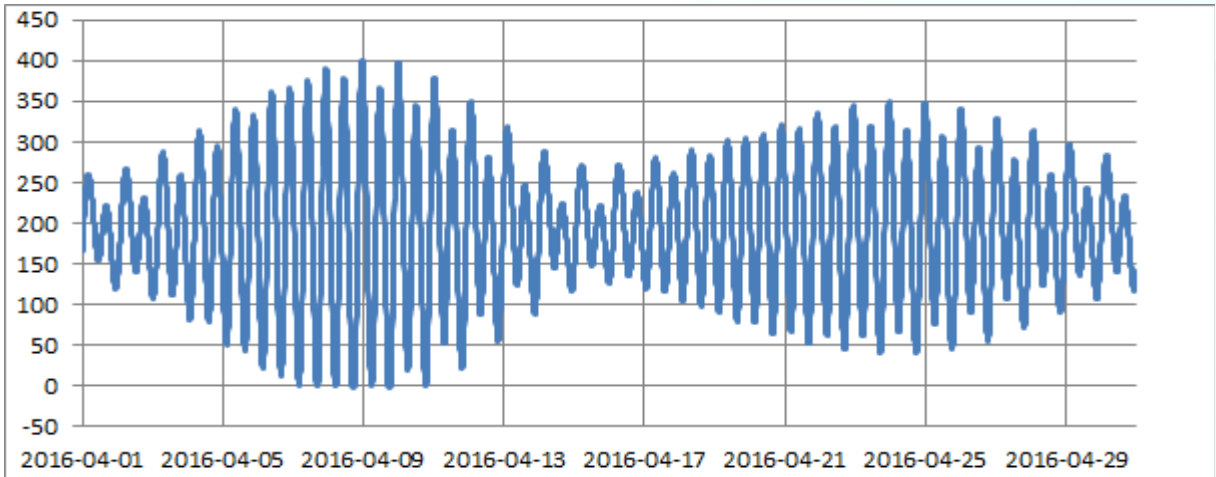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삭 4. 7)		대조기(망 4. 22)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서해안	인 천	891	16:59	832	05:05
	안 흥	668	15:51	620	04:08
	군 산	683	15:11	639	03:26
	목 포	447	14:13	419	02:24
남해안	제 주	278	22:54	248	23:15
	완 도	390	22:21	345	22:38
	마 산	200	21:11	176	21:19
	부 산	127	20:43	111	20:52
동해안	포 항	20	03:25	24	15:56
	속 초	25	02:36	26	15:08
	울릉도	15	02:20	22	14:38

2016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ARS(1588-9822), 조석예보앱(Androi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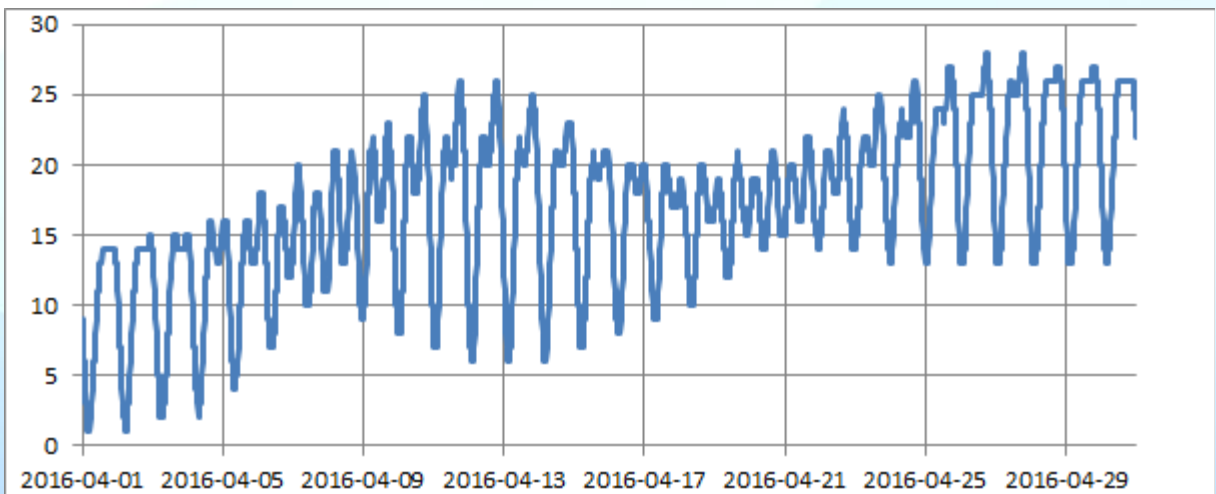




< 2016년 4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16년 4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016년 4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 □ 해양사고 통계(최근 5년간, '11.1.1 ~ '15.12.31)

-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8,592척(58,908명)이 발생하여 선박 8,255척(96.1%) 및 선원 58,074명(98.6%)이 구조되고, 선박 338척(3.9%) 및 선원 834명(1.4%)이 사망(623명)·실종(211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8,592	58,908	8,255	58,074	338	834	623	211
2015년	2,740	18,960	2,639	18,848	101	112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485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 ○ 월별 선박사고 현황



## ○ 해양사고 현황(4월)

- 최근 5년간 4월의 선박사고는 목포, 통영, 여수 順으로 다수 발생, 다도해역, 주요 동향로 및 선박 밀집 해역에서 해양사고 다발
- 4월 선박사고의 주요원인은 해상중사자 운항부주의(198척), 정비불량(170척)이 큰 비중 차지
- 선박운항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선박 정비에 대한 중요성 부각

## 해양 안전정보(4월)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 ○ 안전의식 고취 및 사전 점검 필수

- 최근 5년('11년 ~ '15년) 누계 기관·조타기·추진기 손상 등 단순사고가 273척, 충돌 88척, 좌초 29척 발생
-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 사항 준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점검 철저

### ○ 시계 제한 상황 및 야간항해 주의

- 해무(국지성 농무 포함)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계 제한 상황과 야간 항해 시에는 레이더, 등화 등 가용한 정보를 동원하여 주의 깊게 선박 운항

## 해양사고 방지대책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 ○ 갑작스런 기상 불량에 대비한 안전 운항 및 조치

- 4월 해상기상은 순식간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업을 위해 출어 시에는 선체, 기관, 안전장비 및 배수구 정비 등 준비 철저
- 계류·정박된 어선은 계류 시 선박 간 마찰에 대비하여 방현대 보강, 간조 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길이의 계류색 사용 등 수시로 선박 안전여부 확인

### ○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한 안개 발생에 유의

- 짙은 안개(국지성 포함)가 자주 발생하므로 전방 견시, 정박 및 어로등 게시 철저
- 상호협조를 위해 가급적 선단선 편성, 가시권 내 조업 및 나홀로 조업 자제

### ○ 본격적인 성어기에 대비하여 선체 및 기관 등 사전 정비

- 본격적인 성어기로 출어선은 선체, 기관, 조타기 등 사전점검 철저

### ○ 환절기 화재사고 예방에 철저

- 난방기구 미 사용 시, 전원 코드를 분리하여 화재사고 발생원인 사전 차단
- 선체 재질이 FRP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해수를 이용한 화재 진압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신속한 화재에 적합한 폼(FOAM) 소화기 비치 필요

### ○ 유도선·낙시어선 안전항해 준수

- 갯바위, 절벽 근처 등 위험한 곳에서 낚시 등 레저활동 자제 및 낚시 등 레저활동 시 반드시 구명동의(조끼)를 착용 등 자체 안전조치

※ 구명동의(조끼) 착용시 생존율 : 90%, 미착용시의 생존률 43%

### ○ 1인 조업선 등 소형어선의 자체 안전대책 강구 철저

- 1인 조업선은 해양사고의 인지와 신고가 곤란하므로 안전을 위해 구명동의(조끼)는 반드시 착용, 해양사고 발생 및 목격시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최근 5년간 4월 중 사고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4월 해양사고는 531건(연평균 약 106건) 발생



그림 6. 사고유형별 현황(2011 ~ 2015년. 척)

주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어선 충돌사고 예방

- (사고내용) 항해 중인 어선이 줄음 운항으로 상대 어선과 충돌사고 발생, 조업 중인 상대 어선의 좌현 선미부 파공으로 선원식당 침수  
→ (안전대책)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 당직을 수행하는 선원은 피로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항해 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함

◆ 예·부선 충돌사고 예방

- (사고내용) 예인선이 부선을 접현하여 예인 하던 중 정박 상태로 잠수기 어업을 하던 어선과 충돌사고 발생, 어선 선체 일부 파공  
→ (안전대책) 예부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어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함

★ 4월의 예상 수온

4월의 연안 월평균 수온은 각각 동해 9~15℃, 서해 8~14℃, 남해 12~16℃로 평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1℃ 내외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동해 : 9~15℃ 분포
- 남해 : 12~16℃ 분포
- 서해 : 8~14℃ 분포

▶ 지난달 수온 분포

3월의 연안수온은 월평균 5.5~14.1℃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7.9~9.6℃, 남해연안은 8.8~14.1℃, 서해연안은 5.5~7.7℃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3월 표층 수온분포는 동해 근해역은 10~14℃로 평년에 비하여 1~3℃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고, 남해 근해역은 11~17℃로 평년에 비하여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으며, 서해 근해역은 5~9℃로 평년에 비하여 1℃ 내외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임.

 **어장 분포**

3월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갈치, 망치고등어, 참다랑어는 평년에 비해 순조로웠으나, 고등어, 멸치, 전갱이, 참조기는 평년비 부진

4월에 들면 대형선망어업은 수온 15℃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제주해협~대한해협 근해의 수온전선대를 따라 고등어, 전갱이, 갈치, 방어 등을 어획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해안강망어업은 초반에는 제주도 북부해역에서 갈치, 아귀류,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다가, 중순 이후에는 계절적인 수온 상승과 함께 중심 어장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서해중부해역까지 어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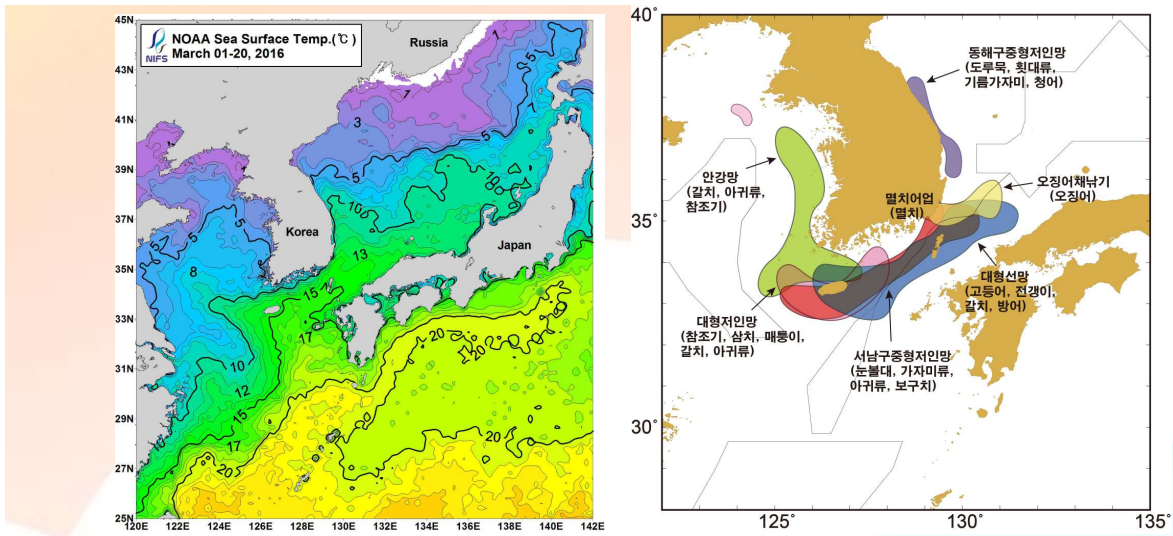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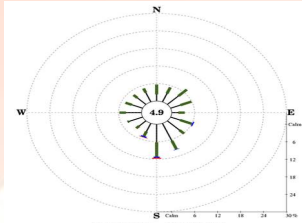


그림 7. 광역 수온 분포(위성) 및 어업별 예상어장도(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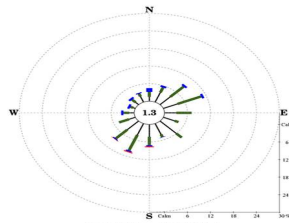
고 등 어	고등어는 남하잔류군을 대상으로 제주도 남쪽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제주도~대마도 사이해역에서도 부분적인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하반기에는 월동 후 조기 복상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도 주변해역에서의 자원 밀도가 서서히 높아지겠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살오징어	살오징어는 월동을 위해 남하회유하는 잔류군을 대상으로 동해 남부해역~대마도 해역에서 부분적인 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포획금지기간(4~5월)에 접어들어 따라 조업은 이루어지지 않겠음.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포획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만 포획금지기간이 적용
멸 치	멸치는 권현망어업이 금어기(4~6월)에 접어들어 따라 자망어업에 의해 거제도~기장해역에서 산란 회유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내유량이 많지 않아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갈 치	갈치는 제주도 북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어장으로의 내유량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 하지만 전체 어획물 중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높아 소형개체를 대상으로 한 어획자제가 요구
참 조 기	참조기는 계절적인 수온하강에 따라 남하하는 어군에 의해 서해 남부해역과 제주도 서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적인 어황은 낮은 어군밀도와 어군의 분산분포로 인해 평년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
기 타	꽁치, 말쥐치, 명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자원량을 유지하고 있어, 순조로운 어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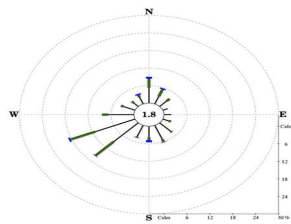
**4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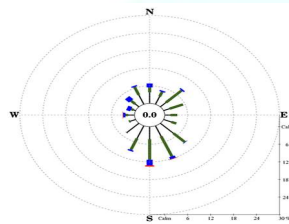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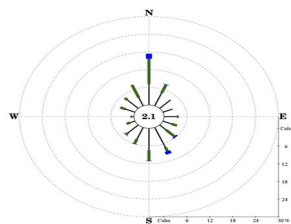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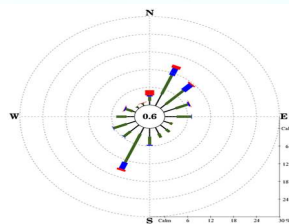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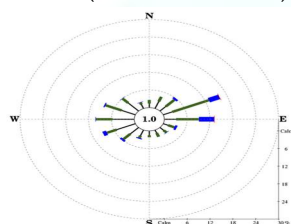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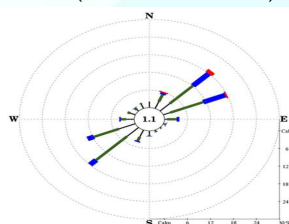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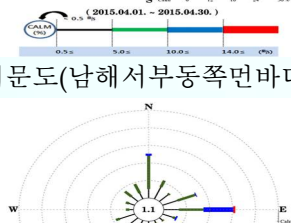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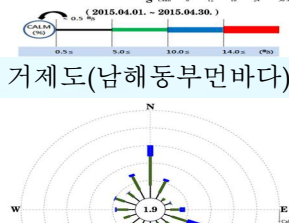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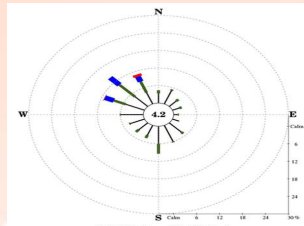
추자도(남해서부서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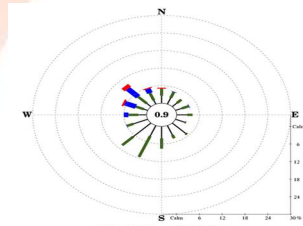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남쪽면바다)

그림 8.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5년 4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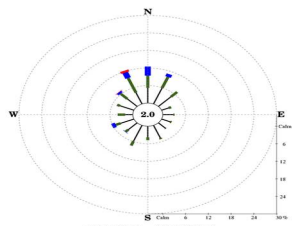
## 4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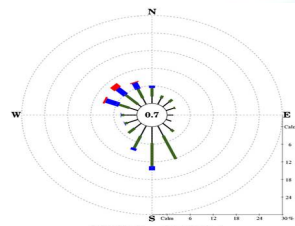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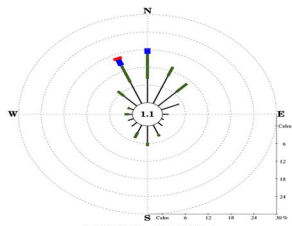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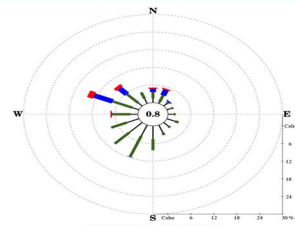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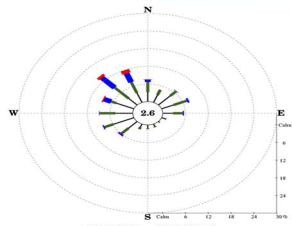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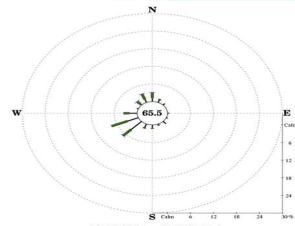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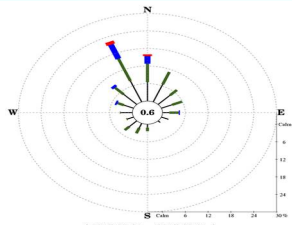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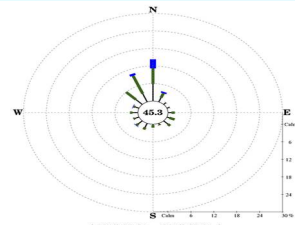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추자도(남해서부서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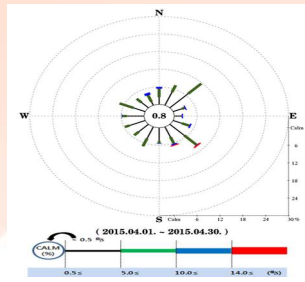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남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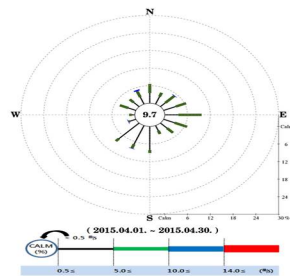
그림 9.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5년 4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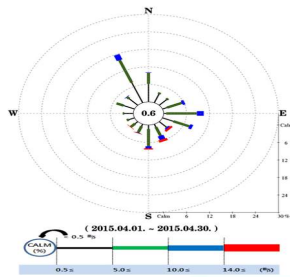
## 4월의 해상풍 (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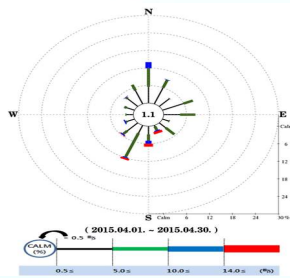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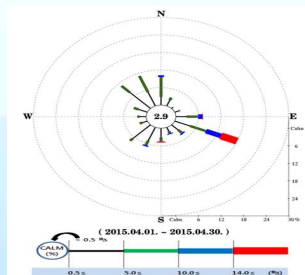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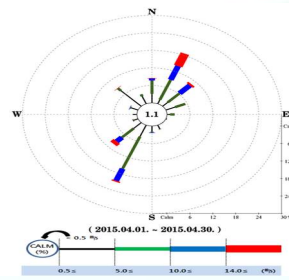
십이동파(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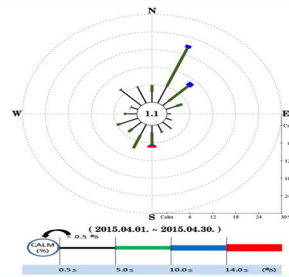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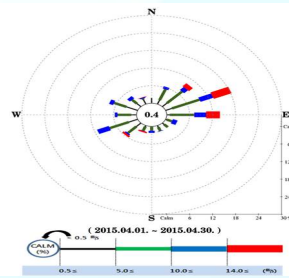
해수서(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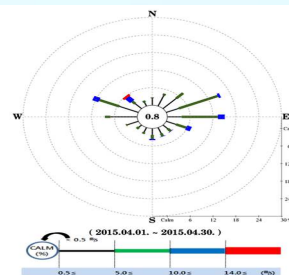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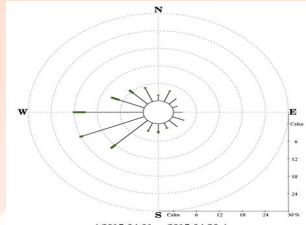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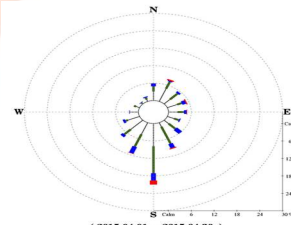
그림 10.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5년 4월, 바람장미)

# 4월의 파랑(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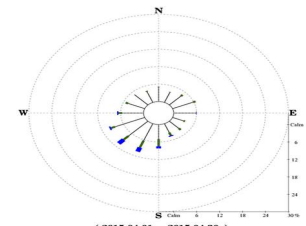
(2015.04.01. - 2015.04.30.)

덕적도(서해중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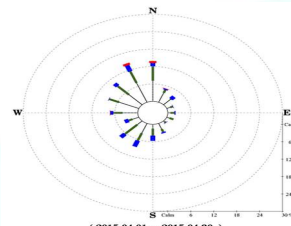
(2015.04.01. - 2015.04.30.)

울릉도독도(동해중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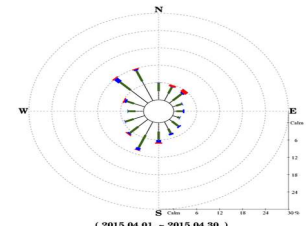
(2015.04.01. - 2015.04.30.)

외연도(서해중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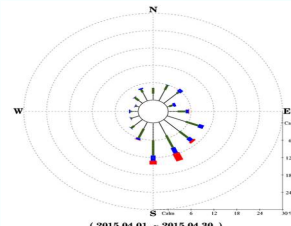
(2015.04.01. - 2015.04.30.)

동해(동해중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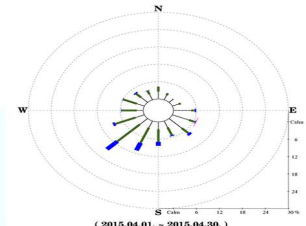
(2015.04.01. - 2015.04.30.)

칠발도(서해남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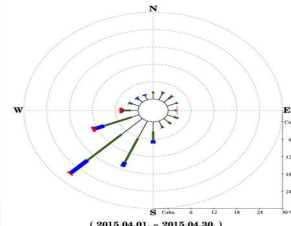
(2015.04.01. - 2015.04.30.)

포항(동해남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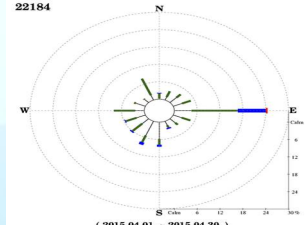
(2015.04.01. - 2015.04.30.)

거문도(남해서부동쪽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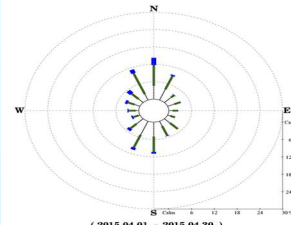
(2015.04.01. - 2015.04.30.)

거제도(남해동부먼바다)



(2015.04.01. - 2015.04.30.)

추자도(남해서부서쪽먼바다)



(2015.04.01. - 2015.04.30.)

마라도(제주도남쪽먼바다)

그림 11. 해양기상부이 관측 파랑('15년 4월, 파랑장미)

## 【참고자료 2】

### ▶ 4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일 시	선 명	피 해	사 고 원 인
'14.4.4 01:19	<b>GRAND F*****E호</b> (몽골선적, 화물선, 4,303톤, 승선원 16명, 강선, 선령 27년)	2명 사망 11명 실종 선체 침몰	기상악화로 적재 철광석이 우현으로 쏠려 조난신호 발신 후 침몰 ※ 당시기상 : 북서, 15~18㎧, 파고 3~3.5m, 시정 0.5해리 (풍랑주의보)
'14.4.13 00:48	<b>SS**호</b> (제주선적, 화물선, 1,172톤, 승선원 7명, 강선, 선령 23년)	컨테이너 유실	기상악화에 따른 파도에 의해 컨테이너가 이동 하면서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어져 조난신호 발신 ※ 당시기상 : 북동풍, 10~12㎧, 파고 2~2.5m
'14.4.15 01:50	<b>55**호</b> (제주선적, 어선 50톤, 승선원 10명, FRP, 선령 17년)	선체 좌초	야간 졸음운항으로 해안가 좌초

